

본 회 의 회 의 록

개회식

대덕구의회사무과

일 시 : 2024년 3월 11일 (월) 11시 개식

제274회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임시회 개회식순

- 개 식
- 국기에 대한 경례
- 애국가제창
-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에 대한 묵념
- 개회사
- 폐 식

(개식 11:00)

○의사홍보팀장 이승숙 의사홍보팀장 이승숙입니다.

지금부터 제274회 대덕구의회 임시회 개회식을 시작하겠습니다.

먼저 국기에 대한 경례가 있겠습니다.

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단상의 국기를 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국기에 대하여 경례

바 로

다음은 애국가를 제창하겠습니다. 반주에 맞추어 1절만 불러주시기 바랍니다.

(애국가 제창)

이어서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에 대한 묵념을 올리겠습니다.

일동묵념

바 로

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.

다음은 김홍태 의장님의 개회사가 있습니다.

○의장 김홍태 존경하는 대덕구민과 동료의원

여러분!

그리고 최충규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!

3월을 맞이하였습니다. 3월은 만물이 소생하는 계절로 신입생들의 설렘과 함께 새로움을 상징하는 자리입니다. 또한 곧 있을 4월의 총선을 앞두고 어수선한 분위기 속에서 공자 말씀 한 구절이 새겨지는 시기인 듯합니다.

‘군군신신부부자자(君君臣臣父父子子)’라 하여 ‘임금은 임금답게, 신하는 신하답게, 아버지는 아버지답게, 아들은 아들답게’라는 뜻으로 세상의 모든 사람이 자기 본분을 지켜야 한다는 정명론입니다. 조직 구성원들 모두가 자신의 일에 충실하다면 주위에 눈 돌릴 틈이 없어 자신의 직무가 아닌 다른 일에 관여하는 월권을 하지 않게 된다. 공연한 경쟁심에서 자기 일을 제쳐두고 다른 사람의 일을 기웃거리며 문제점만 지적하는 사람이 자기 일을 제대로 할 리 없음을 말하는 것입니다.

우리 모두가 자기 본분에 충실하고 있는지 살펴보는 기회가 되었으면 합니다. 환절기 건

강 유의하시기 바랍니다. 감사합니다.

○의사홍보팀장 이승숙 이상으로 제274회 대
덕구의회 임시회 개회식을 마치겠습니다.

이어서 제1차 본회의가 개의되겠습니다.

(폐식 11:05)